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국제 안전보건 동향

2019. 10. Vol. 466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Contents

사고사망 재해예방

- | | | |
|-----|-------------------------------|----|
| I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IOSH 2019) 주요 발표 | 03 |
| II |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이해당사자의 역할 | 14 |
| III |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 18 |
- 영국,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정신질환 겪어
 - 말레이시아, 언론인의 안전을 위한 '미디어 안전여권' 프로그램 추진
 - 호주,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4단계 절차 안내
 - 미국, OSHA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방법 2종 추가 승인
 - [환경 보존] 친환경 산업의 내실화와 성장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IOSH 2019) 주요 발표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는 IOSH 2019(2019년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영국 및 국제사회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미래 산업안전보건 도전 과제와 이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짐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IOSH 2019) 개요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이모저모

- » **대회명** IOSH 2019 (2019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 » **주 관**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 **장 소** 영국 버밍엄 국제회의장
- » **기 간** 2019. 9. 16.(월) ~ 9. 17.(화) [참가자: 978명]
- » **구 성** 기조연설, 27개 병행세션, 5개 극장형 워크숍 등 세션과 전시회
- » **대회주제** 내일을 향한 발걸음 (Take the next step)
- » **7대 세션주제**
 - 사업과 리더십스킬, 규칙준수에서 경쟁우위까지, 선도하는 지속가능성과 인적자원, 협력, 안전보건 연구 성과, 더 나은 작업환경조성, 미래위험과 도전·기회
- » **특이사항**
 -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기술(슬라이도, sli.do*)을 활용한 대회 진행

*슬라이도(sli.do)

회의 중 관중 참여 실시간 질문 사이트(slido.com)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회의명과 회의장 선택 후 질문 작성. 작성된 질문은 모두가 볼 수 있으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상단으로 정렬됨. 좌장은 준비된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나열된 질문 중 주요한 질문을 정리 해서 연사에게 전달하는 식의 진행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연설

» 연사 : Mr. Martin Temple, 영국안전보건청(HSE) 청장

👉 주요내용

- 캐나다 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은 ‘미래는 벌써 와있다. 다만, 고르지 않게 와있을 뿐 (the future is already here –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라고 하였음. 우리가 대비하는 미래가 누군가에는 현실일 것이고, 또 우리의 현실은 누군가에게 지향하고 싶은 미래일 수 있음
- 현재의 직업은 5년 전과는 많이 다르고 향후 5년도 현재와는 많이 달라질 것임. 모든 분야에 IT 신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보건분야에서는 노동자의 고령화, 다국적화, 다세대화,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임.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미래가 선물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 HSE는 미래 고도의 컴퓨터화로 인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 ISO 45001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 수정, 브렉시트 (Brexit)이후 또는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에의 영향도 함께 대응하고 있음. 미래에는 모든 노동자가 완전한 웰빙을 누릴 수 있어야 함. HSE는 IOSH 등 모든 기관과 미래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비해서 협업하고 있음

👉 슬라이드 청중 질문

- Q**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 인정에 대해 HSE 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A** 영국 재해발생보고규정(RIDDOR¹⁾)은 현재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완 과정에 있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규정이 수정되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가이드와 진단 툴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 현재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직업관련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이를 경감하거나 없애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Mr. Martin Temple / HSE 청장 개회 연설



1) RIDDOR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기초연설 1

» 주제 : 개인과 조직의 웰빙, 성과 및 생산성 최적화 전략

(Taking care of business – Strategies for optimiz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 연사 : Dr. John Briffa, 의학박사·작가·강사

👉 주요내용

- 조직의 ‘리더십·지식·전략·경험과 방향성’이 구성원 개개인의 ‘에너지·웰빙’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냈을 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생산성 향상, 성과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인의 ‘에너지’
에너지가 없는 개인은 ‘스트레스와 고통·조직활동 미참여·정신건강문제·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이러한 개인이 소속된 조직은 ‘결근·근무태만·미참여 및 사기저하·잡은 이직·생산성 저하·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인식’ 등의 문제에 접하게 됨. 개인의 결근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 기저에는 근무태만과 조직활동 미참여 및 소속감 부재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업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요인. 연간 1인당 약 1,0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 (한화약 150만원 ~ 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보존시키는 6가지 방법

■ 아침식사

-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먹는 것이 중요 (아침 등 늦은 식사는 먹지 않는 것과 같음)

■ 아침 햇살

- 아침 햇빛은 활동성·정신건강에 좋은 세로토닌 분비 (달빛은 수면에 좋은 멜라토닌 분비)
-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활기차게 하루 시작

■ 충분한 수분섭취

- 성인여성 기준 하루 8잔
- 남자는 카모무게 고려 50% 이상 증량
- 계절 고려 가감
- 차·커피가 탈수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
물 대신 섭취해도 좋음
- 뇌의 2/3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유동적·긍정적 사고 가능

■ 찬물 샤워

- 14℃ 찬물샤워는 신체 에너지 증가
- 신진대사를 530%까지 향상시켜
긍정에너지와 활동성 강화
- 동기 부여하는 도파민 250% 향상, 준비성과
학습능력 강화하는 노라드레날린 530% 향상

■ 운동

- 운동하려 갈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주기적으로 해야 함
(최소 45초 이상)

■ 긍정사고(마인드컨트롤)

- 마음도 몸과 같이 훈련과 습관으로 단련될 수 있음
-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등 통제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흘러가게 둘 것
- 원치 않은 ‘사고’를 기대치 않은 ‘이벤트’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마음가짐과 대책이 달라짐

• 인생이 힘들다 생각 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

- ① 한 발 떨어져서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한다’는 자세로 바라보면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음
 - ②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내게 발생한 ‘문제’를 내 인생의 ‘이벤트’로 바라보고 시간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 ③ 남과 비교하지 말라
- 앞서 말한 6가지 방법이나, 긍정사고는 꾸준함이 중요. 신체나 정신이나 연습과 훈련은 언제나 정답(Practice makes perfect)
 - 지금 하고 있는 일(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에너지와 웰빙을 먼저 살펴야 함



Dr. John Briffa (의학박사·작가·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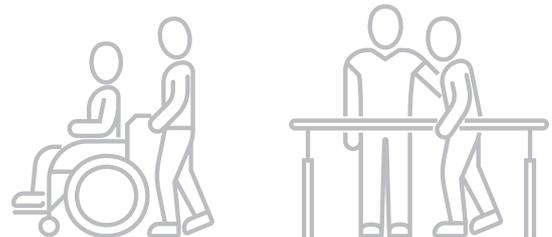
- 전문분야는 웰빙, 회복력향상을 통한 성과 극대화
- ‘Dr. Briffa Wellness’ 재단을 통해 교육, 강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영양, 운동, 호흡과 수면 등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로 제공
- 저서로는 ‘사무실에서의 멋진 하루(A great day at the office)’, ‘건강을 위한 음식(Food for health)’ 등 다수
- 영국 BBC 투데이쇼 등 다수의 방송에서 웰빙과 사업의 성공 등에 대해 강연
- 연사홈페이지 : drbriffa.com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기조연설 2

- » 주제 : 동기부여 강의 - 역경에 적응하기(Motivational keynote: Adapting to adversity)
- » 연사 : Mr. Francis Rolleston Gardner, 언론인·작가

👉 주요내용

- 모험과 위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고로 이어지느냐 아닌가의 차이. 어쩌면 모험에는 감춰진 위험이 있을 것. 스키를 좋아했는데, 스키도 모험과 위험을 모두 담고 있는 스포츠
- 1980년대 아랍어로 학위를 받고 1995년 BBC에 입사, 이집트·수단 등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모험을 다녔음. 긴장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보았으며 200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취재활동 중 급진 알카에다에게 6차례 총격을 받고 중상. 동행하던 아일랜드 출신 카메라맨 동료는 사망
- 현지 병원에서 14차례 수술을 받고 2005년 영국으로 옮겨져 후속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 이후 신체와 정신 재활을 위한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냄. 심리치료를 도왔던 의사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에 힘을 얻어 재활에 성공
- 병원에서 보내는 3개월 동안 근육이 모두 손실되어 몸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 감에 쌓여있던 순간, 스키를 다시 배워보라는 아내의 조언에 따라 스키를 배워 장애인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기도 함. 이후 스쿠버다이버로도 활동
- 역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BBC 기자로 복귀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음. 장애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렇다면 장애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 사회의 협조도 필요. 해외 출장 중 공항(영국 히드로)에서 휠체어를 분실해 2시간 넘게 발이 묶인 적이 있음.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
- 본인의 사례를 계기로, BBC는 기자들이 처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며, 업무로 장애를 가지게된 직원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BBC는 ‘프랭크 가드너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연사가 그간 근무했던 예멘 국경, 제다, 리야드 병원 등을 방문하여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
- 모험과 위험은 분리할 수 없이 함께 가는 공동 운명. 모험속에 도사린 위험을 분석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면 그 역경에 적응하고 이겨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
- 장애로 인해 삶이 많이 달라졌지만,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음.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삶에서 유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



Mr. Francis Rolleston Gardner (언론인·작가)



- BBC 기자, 작가이며 보안특파원
- 1995년 BBC 월드에 프로듀서 및 기자로 합류, 1997년 BBC 최초 걸프만 전담 특파원으로 활동
-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안보에 초점 맞추고 아랍세계에 대한 대중의 오해 해결을 위한 노력
-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재도중 극단주의로 악명높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스와의이디에서 알카에다 총격으로 복부, 어깨, 다리 등에 6차례 총상을 입고 척추신경을 다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
- 2005년 영국여왕으로부터 저널리즘부문 OBE상 수상
- 저서로는 ‘최후통첩(Ultimatum), ‘위기(Crisis)’ 등 네 편의 소설로 선데이타임즈 1위

※ 관련기사: 본고 p. 19 “말레이시아, 언론인의 안전을 위한 ‘미디어 안전 여권’ 프로그램 추진” 기사 참조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병행세션 1

- » 주제 : **돌봄문화 (웰빙) - 튼튼한 조직, 튼튼한 직원 만들기**
(A culture of care – building resilient people in resilient organizations)
- » 연사 : **Mr. Kevin Hard, OCAID사(社)²⁾ 개발실장**

☞ 주요내용

- 문화의 구성요인은 언어, 의식, 믿음과 유물(language, rituals, beliefs and artifacts).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함. 돌봄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리더십과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연구와 사례에 기반한 증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조직은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리더십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나쁜 커뮤니케이션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해시키지 못한 것을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 리더는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의 차이를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함

■ 나쁜리더십 (VUCA)

- V: Volatile (변덕스럽고)
- U: Uncertain (불확실하며)
- C: Complex (복잡하고)
- A: Ambiguous (애매모호한)

■ 좋은 리더십

- Visible / invisible leadership (보이는 리더십 /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리더십)
- Distribute Authority / leads to knowledge(권한이양, 지식 전달)
- Collaboration (협력: 다른 그룹은 혁신과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의 핵심요인)

● **돌봄문화가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 » 돌봄문화가 있는 조직: 안전이 보장되고 업무의 질의 높으며 생산성이 높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됨
- » 돌봄문화가 없는 조직: 결근과 근무태만 비중이 높고 내부 조직력이 약화되어 있음

● **직원의 참여가 높은 조직은 데이터가 아닌 ‘관계’에 기반한 전략적인 서사를 함의하고 있으며, 직원에게 영향력 있는 관리자는 직원을 관리하고 지시하기보다**

- » 독려하고 (facilitate) » 위임하며 (empower)
- » 인정하고 (recognize) » 존중하는 (respect) 모습을 보이며
- 직원들은 조직에 목소리를 내고, 조직은 이에 귀를 기울임

● **좋은 리더는 타고나는가? 누구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칠면조도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차를 막아 도로를 통제하고 모두 안전하게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함.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감하며 지혜롭게 직원들을 돌본다면 직원들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Mr. Kevin Hard]



[칠면조의 리더십: 미국 뉴햄프셔]

2) OCAID :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vidual Development, 산업안전교육훈련 및 전략개발기업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병행세션 2

» 주제 : 사회심리학적 위험 관리 - 작업현장에서 정신건강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
(Managing psychosocial risk - practical steps to promote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 연사 : Ms. Abigail Hirshman, Acas사(社) 정신건강 및 웰빙국장

📖 주요내용

-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직원 개개인이 함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에는 각자 다른 개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업무와 연계되어 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함
- **직장 내 사회심리학적 주요인은**
 - » 감당하기 힘든 업무부담 (unmanageable workload)
 - » 정의가 불분명한 직무역할 (poorly defined job role)
 - » 통제부족 (lack of control)
 - » 일과 개인생활의 불균형 (unhealthy work-life balance)
 - » 서툰 대인관계 (poor relationship)
 - » 조직 변화, 직업 불안정성 (organizational change, job insecurity)
 - » 직무다양성 부족, 업무 직렬 관리의 한계 (lack of variety in work, limited career progression)
-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
 - » 정신건강과 웰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 » 대책은 발생상황에 대한 사후대응, 선제적·예방적이지 않고
 - »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 »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 » 우수사례에 대한 집단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 사업주, 관리자, 직원 각자의 역할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 구현
 - » 사업주는 정신건강 증진에 헌신적으로 임해야하고
 - » 관리자는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 » 직원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특정인, 특정 조직에 한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누구에게나 다 맞는 처방이란 없으므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관리자,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 필요



[Ms. Abigail Hirshman]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병행세션 3

- » 주제 : 마음수련을 활용한 효과적인 안전문화 조성
(Using mindfulness to generate an effective safety culture)
- » 연사 : Dr. Jutta Tobias Mortlock, 런던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음수련은 팀 단위 또는 조직 단위로 동료가 받는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공동 대응 해야 함
- 마음수련을 위해서는 과학이 아닌 상식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마음수련을 조직에서 함께하는 방법(예시)**
 - ① 차례를 알리는 공을 준비하고
 - ② 동글게 앉아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
 - ③ 이슈(예: mindfulness)관련 떠오르는 한 단어를 1초내에 말하고 차례 넘기기
 - ④ 함께 참여하는 이들과의 공감대를 통한 상호 이해
- **신중한 조직(mindful organization)의 특성**
 - » 역동적인 조직의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
 - »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참여
 - » 현실을 단순화하지 않음 (간과하거나 단순화한 것은 없는 지 지속 점검)
 - » 회복력 높고 민첩한 인적 자원 육성에 헌신
 - » 전문가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이러한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치와 믿음, 규칙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조직 내 ‘열린문화’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짐



[Dr. Jutta Tobias Mort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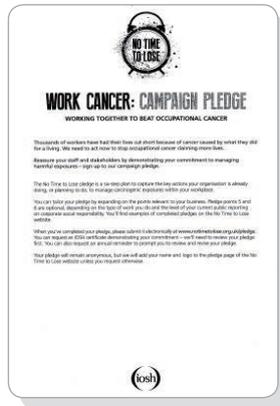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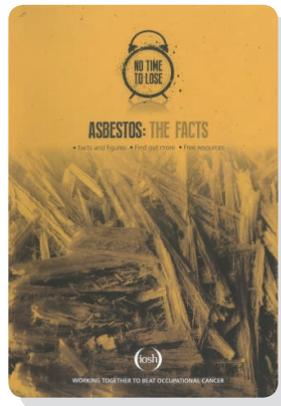
[직장생활의 5단계]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병행세션 4

- » 주제 : 직업성 암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투쟁
(The global fight to save lives from occupational cancer)
- » 연사 : Mr. Simon Butt-Bethlenny,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홍보부장
Dr. Diana Gagliardi,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산업보건과학위원회 총무

👉 주요내용

- 직업성 암은 연도별로 암 발생의 4~20%를 차지함.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
- 2018년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채택한 더블린 성명에서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해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였으며, 현재 37개국에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No time to lose(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표어를 선정하여 석면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350개 기관이 이에 참여



[‘No time to lose’ 캠페인 자료]

-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 ① 노출 평가, ② 예방 대책 수립, ③ 관계자 교육, ④ 노동자 참여 프로그램,
 - ⑤ 해당 물질 유통 추적 관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폐회연설

» 연사: Mr. Andrew Sharman, IOSH 신임회장

👉 주요내용

- 올해 대회는 ‘내일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개 주제의 다양한 세션으로 마련함
- 저명한 연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결과에 기반한 발표가 동 시간대에 이루어져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방금 전 마친 안전보건 인적자원 관련 패널토의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미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인적자원에의 투자를 주제로 한 세미나 후속 토의였음. 우리는 미래 산업안전보건의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문가 육성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들은 투명성과 청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정신건강 증진, 안전보건 강화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안전보건을 실현하여야 함
- HSE Martin Temple 청장의 ‘미래는 벌써 와있다. 다만 고르지 않을 뿐’이라는 윌리엄 깁슨의 인용구에 공감함. 영국의 미래가 어느 곳에서는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딘가의 미래일 것. 다만, 세계 어느 곳에서 일하든 노동자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고르게 누려야 함. 그 목표를 위해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 이 대회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램
- IOSH는 ‘Work 2022’ 캠페인으로 미래 산업안전보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내년은 IOSH가 75주년을 맞는 해임. IOSH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임 회장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Mr. Andrew Sharman / IOSH 신임회장 폐회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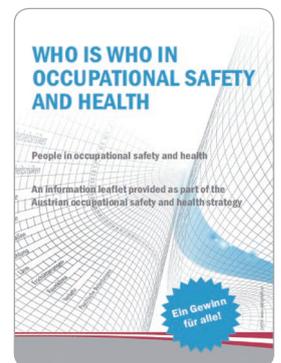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이해당사자의 역할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전략 워킹그룹은 오스트리아 내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기능 및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간추려 안전한 근로환경과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려는 노력 전개¹⁾

❖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의 정의²⁾

- 산업안전보건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및 극소규모 사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구체적인 담당자가 필요. 즉 안전보건 전문가를 확보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해야 함. 본 기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이해당사자와 이들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봄



❖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과 이해당사자의 역할

👉 사업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고 기존 대비 작업환경을 개선 할 의무가 있음. 사업주의 주된 역할은 위험성평가(작업장 평가)를 시행하고 문서화 하는 것임. 사업주가 사업장 방문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장 내 필요한 보호조치가 마련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자

노동자는 자신과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의 안전보건 실현에 이바지해야 함.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따르고 교육훈련을 받으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되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함. 사고나 위험한 상황(아차사고)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함

👉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노동자 대표 중에서 선출되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안전 전문가와는 다름. 안전담당자는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함. 안전담당자는 노동자 대표단의 승인으로 임명되며 오스트리아 노동 감독청에 등록됨. 안전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위원회³⁾, BFI 교육센터(성인 대상), TÜV 안전기술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총 24단원의 특별교육과정 등을 이수 해야 함

1) 출처 : https://www.arbeitsinspektion.gv.at/inspektorat/Information_in_English/OSH_in_Austria/

2) hse.gov.uk/statistics/causdis/msd.pdf

3) 임의번역, 원문 : WIFI, Institutes for Economic Promotion



※ 참고 : 오스트리아의 안전담당자는 SVP⁴⁾로 지칭

☞ 예방서비스와 예방전문가

작업장의 모든 노동자는 예방전문가가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를 받아야 함. 예방전문가는 안전전문가, 산업보건의 또는 필요 시 기타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산업보건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예방전문가 업무의 빈도와 시간은 예방업무시간 또는 현장방문에 따라 다름. 예방전문가는 작업장 평가 시 참석해야 함

☞ 안전전문가

안전전문가는 사업주, 노동자, 안전 담당자 및 노동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람 중심 업무 설계, 사업장 내 건강증진 방안 및 건강 보호의 측면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조언함. 안전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 경제진흥위원회, BFI 교육센터(성인 대상), TÜV 안전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총 288단원의 특별교육과정 등을 이수해야 함

※ 참고: 오스트리아의 안전전문가는 SKF⁵⁾로 지칭

☞ 산업보건의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임명해야 함. 산업보건의는 사업주, 노동자, 안전담당자 및 노동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람 중심 업무 설계, 사업장 내 건강증진 방안 및 건강 보호의 측면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조언함. 산업보건의는 사업주를 도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의 의무 및 갖춰야하는 산업보건의 최소 인원은 오스트리아 작업장보건안전법⁶⁾에 규정되어 있음

안전전문가와 산업보건의의 예방업무시간

50인 초과 사업장의 경우 연간 예방업무시간은 노동자 수와 잠재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며, 1년간 노동자 1인당 최소 1.2~1.5시간(야간 근무가 있을 경우 0.5시간 추가 가능)으로 산정. 50인 이하 사업장은 아래 **☞ 현장방문** 참조



☞ 현장방문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전문가와 산업보건의의 현장방문이 연1회(11~50인 사업장) 또는 격년1회(1~10인 사업장) 이루어 져야 함.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의 합이 2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 또는 철도및광산노동자보험협회⁷⁾의 예방센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4) SVP, Sicherheitsvertrauenspersonen
 5) SFK, Sicherheitsfachkräfte
 6)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7) VAEB, Versicherungsanstalt für Eisenbahnen und Bergbau

예방센터⁸⁾

50인 이하 사업장⁹⁾의 경우 안전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과 철도및광산노동자보험협회(VAEB)가 운영하는 예방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방전문가서비스(안전전문가+산업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의 요청 시 지역 예방센터는 안전전문가와 산업보건의를 현장에 파견하여 무상 안전보건 현장방문서비스를 제공. 예방센터 직원은 작업장 평가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함



☞ 현장감독자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반드시 자격이 되는 현장감독자를 임명해야 함. 현장감독자가 현장에 상시 주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대리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함

☞ 건설현장 관리자

건설현장 관리자는 현장 내 고용주가 각기 다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함. 오스트리아 건설안전관리법¹⁰⁾에는 건설현장 관리자의 역할 뿐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안전보건증진계획을 세심히 작성하는 설계 관리자의 역할도 정의되어 있음

☞ 전문기술

오스트리아 전문기술력제공규정¹¹⁾에 따르면 일부 크레인을 조종하거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특정 작업은 필수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노무를 제공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 노동감독청¹²⁾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및 규정이 엄수되는지 추적 관찰하는 것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노동감독청은 산업안전보건 자문역할도 동시에 담당. 각 지역별로 농업 및 임업 감독청이 있음

☞ 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령 내 규정 이행 및 엄수 여부에 대한 추적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결의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 구성원은 방대한 정보와 참여권한을 가지고 있음. 노동위원회는 노동감독청의 감독관과 동행해야 함. 노동자 5인 이상 시 노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8)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 및 철도및광산노동자보험협회가 운영
 9)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의 합이 250인 미만의 사업체만 해당
 10) the Construction Work Coordination Act
 11) 임의번역함, 원문 : the Regulation on the Provision of Evidence of Specialist Knowledge
 12) the Labour Inspectorate

👉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 AUVA¹³⁾

오스트리아 산재보험공단은 약 5백만 오스트리아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산재사고 노동자의 치료, 직장으로 복귀, 연금 지급 및 산재·직업병 예방을 담당.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센터(AUVAsicher)를 통한 산재예방 무상 지원사업을 펼침

👉 이해집단 - 상공회의소와 노동위원회

사업주의 이익집단인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WKO)와 노동자의 이익집단인 오스트리아 노동위원회(AK)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언 제공 및 지원

🌸 오스트리아, 기타 활동

👉 소방 및 대피

소방 전담직원이나 소방 전담직원 대리, 소방 전담팀 또는 회사 내 소방 전담서비스가 없는 경우, 소방 및 직원의 대피를 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함

👉 소방 전담직원

소방 전담직원의 임명은 당국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규정됨. 소방 전담직원이 되려면 소방 협회 또는 화재예방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여 최소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 소방 전담직원 대리

소방 전담직원 대리의 임명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소방 전담직원 대리를 수행함. 소방 전담직원 대리는 최소 6시간의 회사 관련 훈련 및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며 이는 소방 전담직원이 전달할 수 있음

👉 응급처치요원

사업장에 필요한 응급처치요원의 수는 사업장 노동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이 경우 사업장이란 ‘사고 위험성이 낮거나 일반적인 사업장’을 뜻함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19인	20~29인	30~39인	이후 10명마다
한 사업장 또는 부지의 노동자 수	1~29인	30~49인	50~69인	이후 20명마다
필요한 응급처치요원 수	1명	2명	3명	이후 1명씩 증가

응급처치요원은 상시노동자 1~4명의 사업장일 경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은 최소 4년에 한번 이수해야 함

13)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anstalt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 영국,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정신질환 겪어¹⁾

○ 영국 건설업 박람회에서 제기된 ‘건설업에서의 정신질환’

- » 영국 건설업 박람회가 영국 버밍햄에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어 많은 건설업체가 참가함. 특히 행사기간 중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세미나가 병행으로 열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과 안전보건²⁾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³⁾에서 정의한 정신건강의 날로 정신건강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높이고, 정신건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고무하고자 제정함

- » 세미나 주관사인 영국건설주간(UK Construction Week)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중 10명 중 6명(58%)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답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금전적 문제(45%), 긴 노동시간(41%) 신체적 한계(41%) 나타남
- » 응답자 1/3 이상(37%)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가를 썼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를 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은 64%이었음. 특히 18-34세로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 대비 불규칙한 생활 패턴, 스트레스, 긴 업무 시간, 타지근무가 주원인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업에는 남성 분포가 많으며, ‘강한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⁴⁾

정신질환 주요 증상

- 잦은 지각 및 결석, 출근은 하고 있으나 업무 불가능
- 낮은 자존감
-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하락
- 감정격화
- 직장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
- 문제해결능력 저하



1) 출처 : <https://www.ioshmagazine.com/article/6-in-10-construction-workers-suffer-work-related-mental-ill-health-survey-finds>

2) https://www.who.int/mental_health/world-mental-health-day/en/

3)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4) <https://www.ukconstructionmedia.co.uk/features/mental-health-construction-industry/>

● 정신질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접근법

- »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시한 주요 해결책으로 **무료 심리상담과 유연근무가** 39%로 각각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심리상담자 지정(35%), 현장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27%), 그리고 심리상담 전화(32%)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함
- » 응답자들이 정신질환 극복을 위해 50%가 주로 대화를 하였다라고 답하였듯이, **‘대화’**는 정신질환 예방 및 해결에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나타남.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 영국 건설현장에서 떨어짐으로 발생한 사상자보다 자살한 노동자가 더 많은 만큼 정신질환 역시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지하여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사소한 말 한마디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건설업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자세 역시 중요함

❖ 말레이시아, 언론인의 안전을 위한 ‘미디어 안전여권’ 프로그램 추진⁵⁾

● 미디어 안전여권(Media Safety Passport, MSP) 도입 배경

- » 2011년 말레이시아의 버나마 TV방송국 소속 카메라맨이 소말리아에서 촬영 중 유탄에 맞아 숨지면서 언론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됨. 말레이시아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언론인을 위한 안전보건지침을 제정함
- » 그러나 여전히 언론인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에서 촬영하는 등 안전보건 의식이 부족한 면모를 여전히 보여줌에 따라 향상된 교육 제공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

● 미디어 안전여권 발급 및 안전여권의 다양화

- » 이에, 말레이시아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언론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미디어 안전여권’ 프로그램을 출범함. 미디어 안전여권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 후 현장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안전여권을 발급함
- » 이번 미디어 안전여권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는 정유 및 가스업, 통신업, 에너지 관련 산업, 건설업 등 안전여권 발급 프로그램 대상 업종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면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5) 출처 : <https://nst.com.my/news/nation/2019/08/513081/niosh-launches-media-safety-passport-programme>

❖ 호주,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4단계 절차 안내⁶⁾

○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 정의 및 영향

- »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호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은 물리적 피해처럼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또한 호주 산업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에 따르면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손실은 약 60억 호주 달러(한화기준 약 4조 8,000억원)로 추산됨



○ 일자리에서의 정신질환 주요 원인

- »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노동자가 업무를 할 때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경우 나타나는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반응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함
- » **심리적 위험요소**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항으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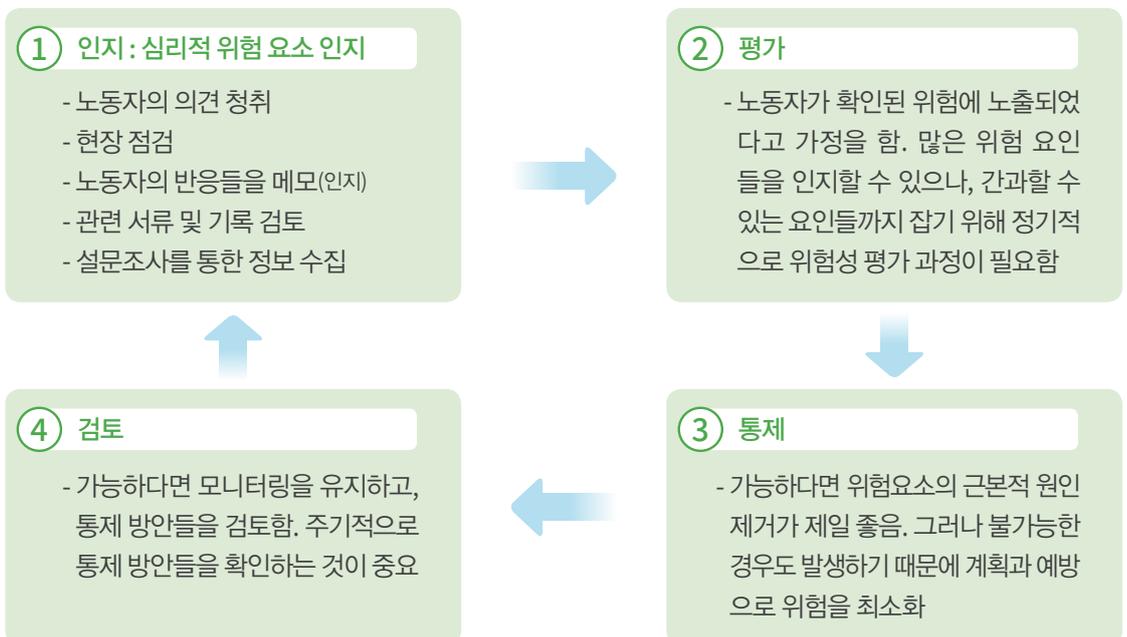
심리적 위험요소를 유발하는 주요요인 사례

- | | |
|---------------|---------------------|
| - 지나치게 높은 업무량 | - 불명확한 직무 목표 |
| - 불분명한 업무분담 | - 열악한 주변 환경 |
| - 적은 임금 | - 재택근무 혹은 1인 사업 |
| - 조직 불합리성 | - 폭력 혹은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 |



○ 사업주가 노동자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4단계

- » 호주 산업안전보건청은 정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4단계를 개발하였고, 사업주들이 각 단계별 내용에 맞춰 미리 조치함으로써 정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6) 출처 :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doc/infographic-four-steps-preventing-psychological-injury-work>

❖ 미국, OSHA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방법 2종 추가 승인⁷⁾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⁸⁾은 호흡보호구기준(CFR 29 1910.134⁹⁾에 마스크밀착검사 방법 2종 추가를 최종 승인함¹⁰⁾ (승인일: 2019. 9. 25.)
 - » 기존 4종에서 추가된 2종은 기존 밀착검사 방법 대비
 - 1 검사 종류가 적고
 - 2 검사 시간이 짧아졌으며
 - 3 시료 채취 단계가 간소화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추가된 2종은 아래와 같음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
 [Docket No. OSHA-2015-0015]
 RIN 1218-AC94

Additional Ambient Aerosol CNC Quantitative Fit Testing Protocols: 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Department of Labor.

ACTION: Final rule.

※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추가 2종

- 추가 1** ▶ 전면형마스크 및 반면형마스크(호흡보호구) 밀착검사를 위한 에어로졸 응축 핵¹¹⁾ 공기에 대한 수정된 정량적 밀착검사
- 추가 2** ▶ 안면부여과식(반면형) 방진마스크 호흡보호구의 밀착검사를 위한 에어로졸 응축 핵 공기에 대한 수정된 정량적 밀착검사

» 개정된 기준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불해야하는 추가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조업, 조선소, 건설업은 기존에 진행하던 밀착검사에서 갱신하거나 대체할 내용은 없다고 밝힘

7) 출처 : <https://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18957-osha-approves-two-protocols-for-respirator-fit-testing>
 8)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9)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10/1019.134AppA>
 10) 원문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9/26/2019-20686/additional-ambient-aerosol-cnc-quantitative-fit-testing-protocols-respiratory-protection-standard>
 11) CNC, Condensation nuclei counter

[환경 보존]



친환경 기사 7탄

❖ 친환경 산업의 내실화와 성장¹²⁾



○ 친환경 산업의 성장 및 개요

-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친환경 산업은 기업의 비용 절감,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 새로운 분야의 이익 창출 등 세 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함
- » 최근에는 소비자부터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들을 소비하는데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 » 2017년 미국의 애플사는 회사부지 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였고, 일반 기업들도 사무실 등 공간 활용에 있어 친환경 실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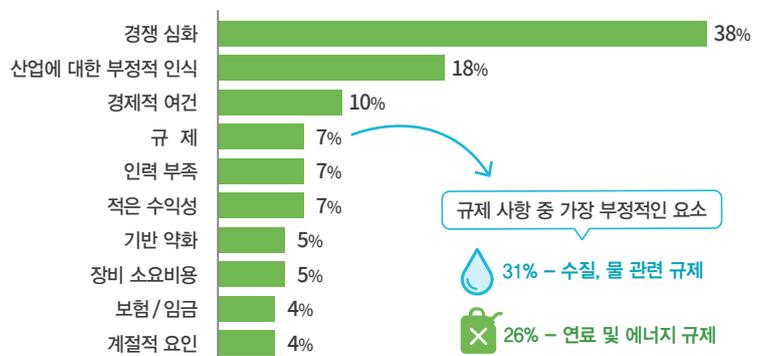
기업들의 친환경 산업 활용사례

- 1 자연광 유입이 많아질 때 자동조절되는 조명
- 2 회의장, 화장실, 창고에 동작인식 센서로 조명 조절
- 3 1회용 포장재가 아닌 재활용가능한 포장재 사용
- 4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절수 환경 조성
- 5 교통수단으로 내연기관보다 자전거를 활용

○ 친환경 산업 이모저모

» ‘친환경 산업 전망 2019’에 따르면 친환경 산업의 주된 장벽으로 지나친 경쟁과열(38%)이 1위로, 2위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18%), 3위인 경제적 여건(10%)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내실 있는 성장이 기대됨

[친환경 산업 업체들이 느낀 성장 제한 요인]



» 이외에도 재활용 에너지,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포장 등 친환경과 관련된 경제 트렌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친환경 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대를 받고 있음

12) 출처 : nst.com.my/news/nation/2019/08/513081/niosh-launches-media-safety-passport-programme



국제 안전보건 동향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eb(Kr). www.kosha.or.kr Web(En). <https://www.kosha.or.kr/english/index.do>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